설날 미사 강론(2019년 2월 3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 잘 아시죠? 37세에 세상을 떠난 열정과 슬픔이 가득한 화가였죠. 자신의 귀를 자른 채로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권총 자살을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던 화가입니다. 실제로 정신 병원에 가기도 했었죠. 신학교를 가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탄광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그림에는 모두 ‘빈센트’라는 서명을 새겨 넣죠. 빈센트의 그림을 보면 아주 뜨겁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마음 속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열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됩니다.

어느날, 고흐가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천에 쓰여진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Fragile (잘 깨짐)”이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보고 고흐는 자신의 무릎을 칩니다. “아하! 사람은 원래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다시 보았는데, 그의 등에도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Be Careful! (취급 주의)”

고흐는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 번 무릎을 칩니다.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거야!”

이 느낌을 바탕으로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몬드 꽃가지가 담긴 유리컵. 깨지기 쉬운 유리컵 안에 아주 아름답게 핀 아몬드 꽃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깨지기 쉽지만, 그 안에 무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깨지는 것이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은 쉽게 깨지고, 한 번 깨지면 못쓰게 됩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은 사람을 다치게도 합니다. 이 유리컵 만큼 약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깨지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사람 마음이죠. 그리고 상처 받고 서운한 마음은 눈 덩이처럼 자꾸 자꾸 커져 갑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마음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태초에 하느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이 깨지기 쉬운 모양입니다. 툭치면 쉽게 깨집니다.

깨지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된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 너무 약해서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Be Careful! (취급 주의)” 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관심과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부드러운 관계는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한 마음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들 간의 관계, 조심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고, 나만 옳다고 내 고집만 부리고 살면, 서로 상처받게 되고, 내 마음도 깨지고, 상대방의 마음도 깨집니다. 내 영혼도 깨지고, 상대방의 영혼도 깨지고, 그리고 관계도 다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본성이 만 천하에 드러납니다. 고집, 편견, 질투, 시기, 욕심, 교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첫번째 죄악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과 같아 지려고 한 교만한 마음이 인류의 원죄가 되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유혹 중에 세 번째 유혹이 바로 교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과 교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자렛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웃에 사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가난한 목수 청년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고 절대 믿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이 가난한 청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리가 없었던 겁니다.

교만과 고집,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사악한 마음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구세주를 자기네 손으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을 고쳐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깨진 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위로 받고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희생 제사가 미사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깨진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설날이라 차례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는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신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이 미사도 제사입니다. 미사와 제사는 근본 정신이 똑같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듯, 미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영혼들과 살아있는 영혼들이 모두 위로받게 됩니다.

설날은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정을 나눕니다. 가족이라는 말처럼 따뜻한 말이 없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가족 끼리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도 함께 겪고, 또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미사가 우리를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는 연결 고리가 됩니다.

물론, 가족 중에도 늘 그런 사람이 있듯이, 공동체에도 늘 스스로 가족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가족의 평화를 깨는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는 것처럼, 공동체에도 늘 불평과 불만으로 평화를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족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공동체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전통 명절에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사랑과 나눔, 그리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눌 때 서로가 참으로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가슴에 울립니다.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언제 인생 끝이 올지 모릅니다. 세월이 무지 빠릅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많이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을 많이 하면 불평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풍성한 설날 명절처럼, 늘 마음 포근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서로 나누면서, 함께 행복한 신앙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